

민주당, 트럼프 내각 인준 거부...반이민 ‘맞불’

오바마케어 폐지 주도 보건

억만장자 재부 내정자 반대

국무·법무도 사정권

미국 민주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그가 이 행정명령 이행에 반기를 든 법무장관 대행을 한밤중에 전격 경질하는 등 조장수를 두자 인준 지연 작전으로 강력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인준 지연을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트럼프 정권출범 열흘여 만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가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재무부 소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톰 프리스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참여를 공식으로 거부했다.

공화당 소속 오리 해지(유타) 재무위원장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자신들의 상임위원 재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초반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므누신 내정자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억만장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원칙 등과 결부돼 집중 표적이 됐고, 프리스 내정자는 그가 공화당 보형정책 설계자 중의 한 명으로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형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경제의 대상이 됐다.



무슬림 소녀와 유대인 소년의 동행 반(反) 이민 정책으로 세계 뉴스를 지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잡 쓴 무슬림 소녀와 키파(유대인들이 쓰는 모자)를 착용한 소년마저 하나로 묶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던 무슬림 소녀와 유대인 소년의 사진이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트위터 캡처>

민주당은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를 사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안 마련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서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반 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준투표를 다음 달 1일로 전격 연기했다.

세션스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반대파를 짓누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논

리에서도.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세션스 내정자는 그렇지 않아도 인준의 길이 험난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중에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을 임명함에 따라 그의 인준을 둘러싼 논란은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이에인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며 “법무장관은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세션스 내정자가 그렇게 할지 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 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틸러슨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하루 후인 2월 1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우 자각이 있는 각료 후보들의 인준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심지어는 상임위 자체에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美 북핵 전문가들 “그랜드 바겐”은 꿈...대북 압박 강화해야

사드 배치·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원 외교위 청문회서 촉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협상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어려운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 스킷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주최 북핵 위협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구 상의 많은 인사들은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편한 2가지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는 지금의 북한 지도부가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에 응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면서 “외국의 핵 포기(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단지 북한 정권의 비합법화,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강령이나 정상회담, 협상 등으로는 절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과거

핵 협상을 통해 대북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양보를 했는데 그런 개입 정책을 통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미 양국이) 상호 관심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동시에 타협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일본 배치와 본토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등 대북 방위 태세 강화를 포함한 ‘위협 감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 기구 수장들 트럼프에 경고장

UN 사무총장 “반이민은 종교·인종 차별”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비판에 가세했다.



보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조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행정명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한 시기와 문맥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을 집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란, 이라크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90일 간 입국 금지뿐 아니라 120일 동안 난민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테흐스 총장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체제를 훼손하는 결정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고 강조한 것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성명을 내게 한 계기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엔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테흐스 총장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자이드 빈 라야드 자이드 알 후세인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열한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EU 의장 “미래 불확실성 키우지 말라”

도날드 투스크(사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이 EU 미래의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향해 격한 비판의 메시지를 토해냈다.



러운 선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오랜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위협요소로 옐렸다.

이어 “점점 다극화한 외부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토록 수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반(反) 유티피언 또는 유럽회의론자가 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70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을 의문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워싱턴의 변화는 EU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독일 신문 빌트 등과 인터뷰에서 유엔 내 EU 추가 이탈을 예견하는 등 EU의 분열을 부추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을 해 EU 정상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투스크는 긴장과 대치로 가득한 세계에서 유럽인들의 용기와 결의, 정치적 유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 그들의 신념, ‘용기면 살고 즐거움 죽는다’를 상기시켜줘야 한다”는 말로 서한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투스크의 의장은 3일 폴란드에서 EU 미래를 논의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정스러운 선언들’을 중국, 러시아의 침략적 행보와 함께 유럽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하는 최대 글로벌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투스크는 EU가 직면한 대외 위협과 관련해 “영토주장이, 해양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중심에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과 테러, 그리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우르스

첨단 상가빌딩 매매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적극 추천 →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보 500만 월 40만
- ◆ 평수 12평 보 500만 월 35만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62-511-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상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건물) 토 17평, 건 260평 금남로 471번, 571번 8차선 도로 접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